

## 행정학의 논리형태와 논증에 관한 연구

이 광 석\*

문 유 석\*\*

###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행정학은 과학성을 추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발견된 지식들을 검증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논증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행정학이란 이론의 체계이고, 이론이란 자기 완결적인 명제체계로서 명제들은 내부에서나 명제들의 관계에서나 논리성이라는 잣대와 경험에 의해 수락되어야 한다. 논증이란 명제가 옳은지 그른지 또는 목적에 적합한지, 적용가능한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정립되는 방식에 관한 문제로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히는 것이다. 논증에는 검증과 반증, 그리고 해석을 포괄하며 이를 통해 유의미한 명제가 입증되고 이들의 체계적 집합이 교과서에 실려서 학문이 전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행정학은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논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행정학 저널에 수록되는 논문들의 초록을 주요어(key words)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바꾸어 발견물을 명제화의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발견물 혹은 새로운 발견물들이 검증이나 반증, 또는 해석을 통해 그것이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진리에 그만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논의과정 자체를 통해 방법론의 정치화(精緻化)가 가능해질 것이고 이를 통해 행정학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한다.

주제어: 논리형태, 외적 논리형태와 내적 논리형태, 논증, 명제, 검증과 반증 및 해석

## I. 서론

모든 학문은 진리 탐구를 목표로 하며, 진리 탐구 활동의 핵심은 존재(on, onta)와 앎(episteme)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서양 학문의 뿌리가 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철학을 다양한 과학들이 증명 없이 참으로 가정하는 모든 원초적 명제라고 정의한다(Monk, 2013:111).<sup>1)</sup> 과학에서는 철학과는 달리 가정하는 명제를 증명에 기초하여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20세기 초에는 논리실증주의가 과학과 철학을 틈을 메워주려 하였다. 행정학의 전개를 이에 적용하면 학문으로

\* 주저자

\*\* 교신저자

1)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이 있는가?”와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두 개의 질문이 철학의 기본 질문인데,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은 철학자들은 “무엇이 정말로 참되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변형된다. 즉 철학자들은 매우 엄격한 ‘있음(on, being)’의 기준을 만족시킬 때에만 ‘있다’고 말한다.

탄생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sup>2)</sup> 그 이후에도 과학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행태주의나 비교행정)이 나타나, 논리실증주의의 적용에 대한 논의와 이를 비판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고 그와 아울러 과학화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제는 새로이 과학화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과학화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행정학의 외연 확대이다. 행정학은 도시행정, 교육행정, 환경행정, 복지행정, 기후변화행정 등으로, 다양한 영역에 한없이 확장되고 있다. 이는 해당 학문 영역에서의 이론들과의 관계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도 함축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으로서의 행정학’이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입증을 통해 정제된 지식을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야 하고,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해 틀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이 글은 지적하는데 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하라(Whereof one cannot speak, thereof one must be silent)’라는 비트겐슈타인 명제에 따르면, 말할 수 있는 영역인 과학과, 말할 수 없는 비과학의 영역이 엄격히 구분된다(Wittgenstein, 1921).<sup>3)</sup> 행정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활동 중 행정학의 과학적 성격은 ‘말할 수 있음’에 해당하고, 행정학에 ‘말할 수 없다’ 함은 가치, 윤리 등과 같은 성격으로 이 글의 논의에서는 비켜 서 있다.

이 글에서 강조하는 것은 ‘과학’ 혹은 ‘과학적’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행정학에서 그 정신이 충분히 이해되었느냐를 묻고, 또 실증주의라는 이름에 알맞은 그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였느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혹시 겉으로만 쉽게 실증주의를 적용하여 의사실증주의(pseudo-positivism)를 양산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서, 그 대안으로 행정학에서 과학화가 충분히 이해되도록 더욱 더 철저히 논의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 구체적 방법을 명제화, 논리형태와 논증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논증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행정학의 흐름에서 발견된 진리 또는 유사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논증이 필요하기에 그 방법이 논의될 것이다. 물론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쌓여진 진리 또는 진리에 근접한 것들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이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먼저 존재하는 것(예컨대 행정학에서는 행정)과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관해서 살펴본다.

2) 이를 위해 지난 시절의 논리실증주의의 정신이나 장점을 재검토하고, 이것이 지닌 철학적 배경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행정학계에서 있어야 한다. 과학의 개념에 관해서는 많이 논의되었다(윤명로, 1980; Lyman, 1970; Young, 1968; 이한구, 2011; Popper, 1972, 1976. 1979 등). 과학의 속성은 관찰적 적절성(observational adequacy), 기술적 적절성(descriptive adequacy), 설명적 적절성(explanatory adequacy)을 의미하고 후자로 올수록 과학화가 높아진다고 한다(Lyman, 1970: 42-45). 여기서 설명적 적절성은 예측과 관련될 수도 있다. 이에 관해서는 Young(1968)을 참조하라.

3) 이에 반대하여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도르노(Adorno)의 반론이다(Adorno, 2005:63). 한편 ‘전체는 비진리이다’라는 아도르노의 명제는 포퍼(Popper)에게는 허용될 수 없는 명제이고 이는 실증주의 논쟁을 통해 잘 전개되었다(Adorno, et al., 1976).

## II. 학문으로의 과정

### 1. 실증주의와 지식의 성장

이론이란 학문 일반의 자기 완결적인 명제체계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개념적 질서를 가진 언어의 체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이남인, 2013:27; 한상진, 1996:20). 이 관점에 가장 충실한 흐름이 논리실증주의로 과학이론이란 명제의 집합이며,<sup>4)</sup> 이 명제들은 이론언어와 관찰언어로 구성되며, 전자는 어떤 형태로든 후자와 연결되어야만 의미와 정당화가 이루어진다(이상원, 2008).

실증주의도 여러 갈래가 있는데, 고전적 실증주의가 있는가 하면, 비인 학파 중심의 현대의 논리실증주의, 비인 학파와 베를린 학파 등의 결합체인 논리경험주의, 현대의 논리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발전한 행태주의 등이 있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사회과학은 현상학, 해석학, 비판이론 등이 있으며 이 정-반의 관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postmodernism이나 홀리스틱(holistic) 패러다임이다(유문무, 2009; Butler, 2002).

실증주의를 보통 과학주의(scientism), 행태주의(behaviorism), 양화주의(quantificationism)를 그 핵심요소로 한다(유문무, 2009). 행정학에서는 이를 따르면서도 그 구성요소의 강조에는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양화주의에 기초하게 되면 명료성이 확실한 장점이 있고 따라서 논리형태와 논증이 덜 필요하게 된다. 이 글은 실증주의 요소 중 과학주의에 치중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양화주의보다 명료성이 떨어지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논리형태와 논증이 더 필요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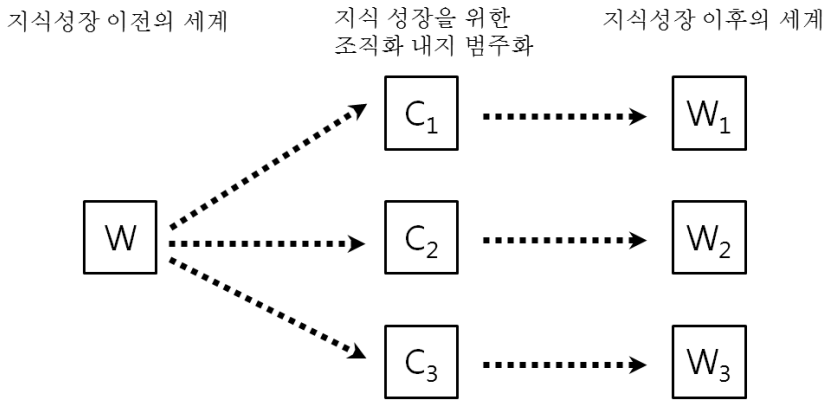
행정학이란 행정에 관한 언어체계(Farmer, 1999:246-248)라는 관점에 선다면, 행정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행정 현상이라고 하는 실체는 실재하는가? 경험할 수 있는가? 그 경험은 의식과 그 대상의 물리적 관계인가, 의식에 내재하는 의미적 관계인가?(박이문, 1982:73), 또는 행정현상이 있는 그대로를 연구자가 연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변형되어 인식된 것을 현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연구하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행정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학 자체의 연구, 즉 실재의 문제와 인식의 문제, 그 인식의 원천에 관한 이론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sup>5)</sup> 사실 행정학에서의 이론 구성에 대한 연구는 행정학의 중요한 한 분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분야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이런 문제들의 기초는 지식의 성장이라는 주제이다. 지식의 성장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성장의 일반 이론에 따라 지식 성장도 분화라는 관점을 따라서 논의해 본 것이 아래 <그림 1>이다(이한구, 2011:180; 김경동, 1978: 118-119; 김경동, 1995:61; Lauer, 1992:85; Coser, 1971:91).

4) 여기서의 명제는 문장과는 다르고 언명, 진술과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논증의 원어는 argumentation 이지만 여기서는 논의와 (넓은 의미의) 입증이라는 측면에서 카르납의 confirmation을, Popper의 corroboration을 뜻하며(임규정, 2004) 검증이나 반증, 그리고 해석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검증은 verification, 반증은 falsification의 국역으로 이해한다.

5) 예컨대, 구조주의의 '구조(structure)'라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추상적으로 인식한 결과물일 뿐일까? 프랑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구조주의(structuralism)'를 여기서는 인식론으로도 존재론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 지식의 성장 모델



출처: 이한구(2011:180) 변형

여기서 지식의 성장은 어떻게 아는가 하는 문제와 결부되는데, 개념 체계니 지식의 성장이니 하는 것은 모두 언어에 의해 빚어 놓은 것이다.<sup>6)</sup> 앎은 반드시 무엇인가가 있는 것에 관련된 앎이요, 무엇이 있다는 말은 그것이 알려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박이문, 1982:143). 알려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언어적이고 2차적으로는 실제적이다(정대현, 1987, 1995). 뿐만 아니라 모든 추리가 언어학적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해도 근거, 경과 그리고 결론이라는 관념들에 언어적 형식화를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Gorovitz et al., 1993:21).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학문으로의 진입을 뜻하는 것인데, 사회현상은 언어현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이를 달리 학문적으로 표현한다면 모든 지식은 명제로 표현되며, 제시된 명제에 의해 유의미한가 아닌가 또는 어떤 유의미한 명제가 참인가 아닌가가 결정된다(Brown, 1987:20). 즉 어떤 한 이론이 과학적인 것이 되려면 그것은 실제 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관찰명제(observation statement)에 의해서 검증이나 반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도록 하여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명제와 관찰 사이의 관계와는 달리, 명제들끼리의 관계는 논리학이나 수학에서의 지식을 기초로 하면 결정적인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Kuhn, 1970). 여기서 사물해석(de re)와 의미해석(de dicto)의 문제가 생겨난다(김영정, 1997; 강상진, 2010).

## 2. 사물해석(de re)과 의미해석(de dicto)의 차이

과학철학에 따르면 과학의 절차와 구조는 세 층위로 이루어진다. 제0층은 그 주제가 사실이며, 제1층은 그 주제가 그 사실에 관한 설명이고 이를 과학이라고 한다. 제2층은 그 주제가 과학적 설명의 절차와 논리에 관한 분석으로 이를 다루는 학문을 과학철학이라고 한다(Losee, 1980:17). 이론은 0층의 사실을 존재로 바꾸며, 제1층 및 제2층과 관련되며, 관찰명제의 문제, 즉 언어의 문

6)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이다’라는 비트겐슈타인의 명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Wittgenstein, 1921).

제로 환원되고(Kuhn, 1970:36; 김영정, 1997), 이는 다시 de re와 de dicto로 축약된다. 그런데 언어는 곧 실재를 지시한다기보다는 우리 마음 속에 어떤 상(像)을 제시할 뿐이다. 이 상은 실재에 대해서 모호한 암시만을 던져주며 가능태의 외적인 양태일 뿐이다(Heisenberg, 1985:159). 문제는 연구 대상으로서의 현상은 실체(reality)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실체와 독립해 있고, 연구자와도 독립되어 있는 연구라는 것이다(Iggers, 2005, 121). 이는 연구과정에서의 굴절을 의미하고, 굴절이 있다는 것은 있는 사실이나 현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像)으로 본다는 의미이다(Thevenaz, 1962; 정대현, 1987; 김영정, 1997:23). Frege의 설명에 따르면(정대현, 1987) 관측되는 천체는 망원경의 렌즈에 상(像)이 맺히고 이는 다시 과학자의 망막에 영상으로 자리 잡는다. 이 때 그 천체는 지시대상이고, 망원경의 렌즈에 맺힌 상이 의미이고 과학자의 망막에 있는 영상이 관념이라고 한다. 비록 망원경 렌즈에 비친 상은 일정하나, 과학자의 망막에 비친 상은 누가 그 망원경을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김영정, 1997:23).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의미의 관계망이 1차관계망, 2차관계망, 3차관계망 등으로 파생됨을 의미한다(Heisenberg, 1958:160-161). 따라서 대상이 어느 수준인가를 고려하여 어휘를 선택하여야 한다.

행정학이 학문으로 성립하려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행정학이 언어체계임을 인식해야 하는바, 바로 이점에서 학문으로서의 행정학은 실제로서의 행정과 구별되며, 이를 언어적 전회라고 한다.<sup>7)</sup> 이는 행정현상을 예측하거나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이론이 어떤 논리적 형식을 취한 언어적 가공물(verbal artifact)이기 때문이다(안병직, 2004:39). 이를 논하기에 앞서 ‘경험적으로 사실인지, 즉 실재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 3. 실재의 실체

행정 개념을 논의함에 있어서 개별적 행정행위나 행정처분의 존재는 익히 알 수 있다. 공항에 나가면 여권을 보고 심사하고 도장 찍어 주는 일 등은 행정처분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면 행정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에 대한 논의가 현상과 본질과의 관계이다. 여기서는 가장 널리 그리고 많이 논의된 유명론과 실재론을 살펴보는데 이 주장은 이 논쟁은 중세의 신학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서 심각한 역사적 대립으로 나타났었다(강상진, 2010).

#### 1) 유명론

유명론(唯名論, nominalism)은 보편자(universal)는 단지 개념일 뿐이며 개념은 개체의 묶음을 명명하거나 기술하기 위해 채택된 단어들일 뿐이라는 관점이다<sup>8)</sup>(Janik and Toulmin, 2013: 210).

7) 이 용어 자체는 철학에서 유래하고 철학적으로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학에 응용될 때는 정의된 대로 사용된다. 이에 관해서는 강신택(1981)을 참조하라.

8) 이 ‘개념’이라는 것의 기원은 근대 철학에서 ‘관념(idea)’라고 부르는 것으로까지 추적해 볼 수 있다. 이는 보다 훨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심지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물보다 더욱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서양 철학의 뿌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관념’이야말로 우리 머리 속에,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생겨나는 어떤 심리적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사람’이라는 보편자는 단지 개념일 뿐(즉 실재하는 것은 개별적인 사람들일 뿐)이며, 보편은 나중이라고 주장한다(이진경, 2013). 비록 일반인들이 추상명사나 일반명사에 실재성을 부여하는 경향을 갖고는 있음도 인정은 하지만(Janik and Toulmin, 2013: 211), 그들 모두 개념의 세계로 이루어진다(박이문, 1982:89-95). 가장 대표적인 견해의 차이는 현상학과 언어철학에서 나타난다. 현상학에서는 내적 의미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 이름이나 언어로 보는 견해로 경험에 의미를 제공해 주는 것은 언어가 아니라 특수한 현상들을 보편적인 것들로서 인식하는 행위이다. 즉 후설(Husserl)에게 언어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의미들에 부여하는 것으로 부차적인 것일 뿐이다(Eagleton, 1990:79; Maren-Grisebach, 1979). 이에 비해 소쉬르(Saussure)나 비트겐슈타인은 후설이 주장하는 명칭이나 언어가 부차적인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거부하고 의미가 언어 속에서 생산된다는 주장을 편다(Eagleton, 1990:79; Parker and Sim, 1997:390; Maren-Grisebach, 1979). 즉 내적인 경험영역이 언어의 개입 없이 존재하는 것은 허구인데, 그 까닭은 언어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실존이 시간에 의해 구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에 의해 구성된다는 하이데거의 의견과 상통한다.

유명론의 행정학적 의미는 행정이란 생활세계에서 실재하는 것이고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생활세계에서이며, 생활세계에서 실재할 때 그 사이의 이음새는 전달체계(delivery system)이라는 함축이다. 즉 행정은 이름뿐이며 실재하는 것은 일선이 되며, 따라서 일선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즉 ‘일선’ 행정조직은 ‘말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된다. 따라서 유명론의 의미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정부가, 또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전달체계상의 조직에서는 일선기관이 그 역할 수행에서 중요하게 된다. 또 다른 이유는 행정에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조직이나 재정 등의 개념 파악을 위해서는 유명론의 관점이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Brown, 1977:37).

## 2) 실재론

실재론은 보편자가 개별적인 것들에 어떤 식으로든(예컨대 추상적 설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sup>10)</sup> 실재를 실체로 본 견해는 이데아론이다. 또 다른 이론은 실체를 과정으로 본다.

9) 여기서의 문제는 이름(name)과 개념(concept)과의 관계이다. 전자는 언어적인 차원에 있는 것이고, 후자는 우리가 머리 속에서 뭔가를 생각할 때 그 생각의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들 관계의 선후나 정도를 두고 의견을 달리해 왔다. 따라서 이름은 ‘짓거나’, ‘붙이는’ 것이지만, 개념은 ‘정의(define)’해야 하는 것이다. 흔히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이름 붙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컨대 삼각형을 ‘세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으로 정의할 때, 이것은 그런 수학적 존재자를 ‘삼각형’이라는 이름으로 부를지, ‘삼변형’이라는 이름으로 부를지를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누군가가 보편자(universal) - 예컨대 ‘사람’ - 가 ‘이름’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편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보편자가 ‘개념’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편자의 존재를 전혀 부정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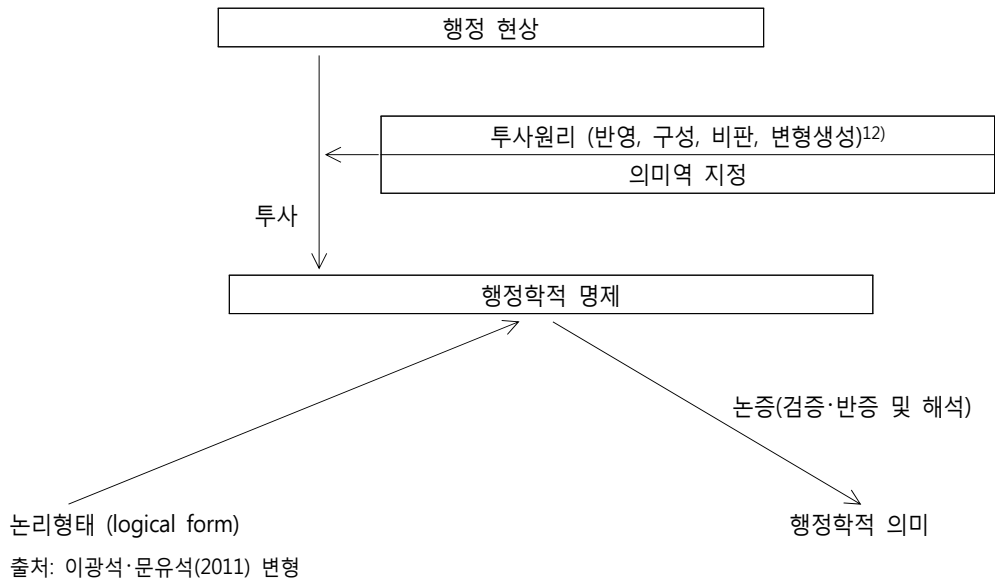
10) 여기서 말하는 실재론은 유물론적 실재론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이진경, 2013: 93). 보편자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1) 여러 대상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것과, 2) 자연적으로 여럿에 대해 서술될 수 있는 것이 그것이다. 1)을 수용하는 이들을 실재론자라고 부르는 반면에, 보편자가 정신 안에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중세에는 유명론자(nominalist)로 불렀다. 즉 보편자는 명칭들일 뿐이라는 것이다(이재경, 2008). nominalism이라는 말의 nomin...라는 게 ‘이름(name)’을 뜻하는 라틴어 nomen에서 온 말이다.

이 관념은 고대 헤라클리투스(Heraclitus)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데 현실의 보편적 형태는 존재가 아니라 생성이라고 보는 불교 사상과 유사하다. 즉 앞선 것들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사건들의 연속적인 생성으로 보면서 실체의 개념을 거부하였다. 근대에서는 화이트헤드(Whitehead)가 어떤 실체가 생성되는 방식이 그 실체의 본질을 형성한다(이른바 과정의 법칙)고 주장하면서 실재는 과정이라는 관점을 취한다(Lauer, 1992:178-179). 이처럼 실재론은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관점으로 ①세계는 우리의 인식과 독립된 일정하게 고정된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②따라서 세계의 존재방식에 대해 하나의 기술이 존재한다. 그리고 ③언어 이전에는 사물이나 개념은 다만 모호하거나 피상적으로만 인지될 수 있지만(Chomsky, 1966:30), 언어를 통해 세계의 존재방식을 완전히 그려냄으로써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고 본다(이주향, 2005:51).<sup>11)</sup>

### 3. 투사

행정학이 행정에 관한 언어체계라면 우선 행정현상이 어떻게 언어체계에 포함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연구자는 먼저 행정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다음, 그것을 어떠한 지식 성장을 위한 조직화 내지 범주화의 원리에 따라 학문으로 전환시킨다. 이를 투사라고 하는데 현상을 행정학에 반영하였는가, 구성하였는가, 변형생성으로 이루어졌는가 등으로 묶어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의미역과 적합하여야 한다. 이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2>가 된다.

<그림 2> 행정과 행정학과의 관계에서의 투사의 위치



11) Honor & Hunt(1978)는 실재론을 6가지로 정리·요약하고 있다. 철학자들은 실재론을 인식론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조중걸, 2007:32-33), 사회과학자의 관점에서는 존재론으로 파악함이 나올 듯하다.

12) 변형생성은 Denzin and Lincoln(2011)의 participatory와 유사한 듯하나 차후의 연구로 넘긴다.

위 <그림 2>를 중심으로 전개하면, 얇은 반드시 무엇인가가 있는 것에 관련된 얇이므로 인식과 존재는 학문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였음은 서두에서 인용한 바 있다. 해킹(Hacking, 1975)에 따르면 17세기에는 관념과 대상의 문제로, 논리실증주의자에게는 의미와 그 지칭대상과의 관계로, 비트겐슈타인 이후에는 문장과 그 서술대상과의 관계로 제기되어 왔다고 한다(박이문, 1982:143). 그렇다면 행정학에서의 의미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며 행정학은 어떻게 지식을 이루고 나아가는가? 즉 행정학에서의 문장과 그 서술대상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의미의 원천에 대해서는<sup>13)</sup> 실증주의와 후기실증주의, 구성주의, 비판이론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는데 이를 표로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표 1> 실증주의, 후기실증주의, 구성주의, 비판이론의 비교

	실증주의	후기실증주의	구성주의	비판이론
목적	엄밀한 과학 (hard science)	실증주의 수정	주체의 지각(subject perception)을 해석함으로써 이해를 획득하는 해석주의자	권력에 의해 압제받는 이들을 위하여 의미있는 (critical) 변화 창조
존재론	① 소박한 실재론 ② 실체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알 수 있다.	① 비판적 실재론 ② 실체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불완전하고 확률적으로 알 수 있다.	① 상대주의 ② 부분적이고 특정한 구성되고 실체.	① 역사적 실재론 ②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윤리적, 성적(性的) 가치에 의해 구체화된 가상적 실체.
인식론	① 2원론/객관주의 ② 진리의 발견	① 수정된 2원론/객관주의 ② 가능한 진리의 발견	① 주관주의 ② 창조된 발견	① 주관주의 ② 가치가 개입된 발견
방법론	① 실험/조작 ② 가설의 검증 ③ 계량적 방법	① 수정된 실험/조작 ② 비판적 다원주의 ③ 가설의 반증 ④ 질적 방법 포괄	① 해석학적 ② 변증법적	① 소통 ② 변증법적
탐구의 목적	설명: 예측과 통제		이해, 재구성	비판과 변형, 해방과 복권
지식의 본질	사실이나 법칙으로 정립된 검증된 가설들	그렇듯한 사실이나 법칙인 반증되지 않은 가설들	합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혼합되어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재구성	구조적/역사적 통찰
지식의 축적	성장: 지식체계에 부가되는 것으로 블록쌓기, 일반화와 인과관계로 연결		더 많은 지식에 따라 세련화된 재구성, 대리 경험	역사적 수정주의, 유사에 의한 일반화
가치	배제		포괄: 형성적	
교육 훈련	기술적이고 양적 방법, 실제이론	기술적: 양적 및 질적 방법, 실제이론	재사회화: 양적 및 질적 방법, 이타적이고 해방의 가치	

출처: Lincoln, et al(2011: 98-101).

13) 이는 사회과학적 논의로 철학적 관점의 논의와는 차이가 난다. 철학적 관점에서 논의한 의미론은 문장수(2004)를 참조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아는가? 이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일차적으로는 언어적이고 2차적으로는 실재적이라 한다(정대현, 1987, 1995). 객관주의는 지식이란 인간의 외부세계에 대한 해명으로 본다는 데 있으며 구성주의가 지식을 인간의 창조물로 보는 것과 대비된다(Berger and Luckmann, 1991:13-16; 고미영, 2009:44). 한편 논리실증주의는 방법론적 일원론, 발전 정도의 기준으로서의 자연과학, 과학적 설명으로서의 인과적 설명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Wright, 1971:4; 이유선, 1993:228). 논리실증주의의 행정학적 의의는 기본적으로 행정을 존재의 영역으로 보고(유민봉, 2012:6) 관찰을 통해 행정현상을 기술하거나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즉 행정현상에서 존재하는 규칙성을 찾아내어 보편타당성을 도출하려는 과학적 방법을 지향한다(유민봉, 2012:20).

이들을 행정학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실증주의와 후기실증주의를 하나로 묶고, 구성주의를 또 하나의 범주로 묶어본 후, 여기에 덧붙여 이론인 변형생성이론을 살펴보려고 한다.

### 1) 행정학에서의 실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

실증주의는 그 자체로 존재하는 세계에 대한 합리적 인식이야말로 참된 인식이라는 전제 하에서, 가능한 한 주관적인 것에서부터 독립된 객관적 인식을 추구한다(조주환, 2001).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도구들을 잘 이용하면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는다. 이는 정신(mind)과 행동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sup>14)</sup> 정신은 인간 행동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Stout, 2006:3). 즉 심층과 표층의 일치를 담고 있다. 따라서 모든 심층적 귀속은 행동적 성향을 표현하는 if-then 문장으로 나타나는데, 다만 if 절에는 자극을, then 절에는 행동적 반응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윤혜린, 1994).

실증주의는 행정학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이는 다음 네 가지 원칙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논리적 원자주의의 원칙, 의미에 대한 검증가능성의 원칙, 선험적 지식(an apriori knowledge)은 분석적 성격을 갖는다는 원칙, 가치에 대한 정의주의(情誼主義)의 원칙 등이 그것들이다<sup>15)</sup>(오수길 외, 2009). 네 가지 원칙 가운데에서 사이몬(H.Simon)은 검증가능성의 원칙(the verification principle)과 가치에 대한 정의주의적 이론(the emotive theory of values)을 적극 수용하여 행정학의 귀납적이고 과학적인 토대를 수립한다. 이처럼 논리실증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객관주의 학문은 이 세상의 합리적인 존재에 무조건 타당한 것을 추구하는 과학이라 할 수 있다(오수길 외, 2009).

14) 이들은 ‘어떤 정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행동하는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다(what it is to be in a certain state of mind is to be disposed to behave in a certain way)’라고 주장한다(Stout, 2006:3). 이는 심리적 속성들을 행동성향의 속성들과 동일시함으로써 행동상의 결과를 심리적 원인과 관련짓는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력을 부여하는 점이 강점이라고 한다(Fodor, 1991:20).

15) 논리적 원자주의란 모든 복잡한 명제들은 그 진리성이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단순한 명제들에 의존하며, 이러한 명제들은 그것 외의 다른 어떤 명제들도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미에 대한 검증가능성이란 오직 과학적 방법들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는 의미로 이루어진 명제들을 통해서만 진위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소광희 외, 1985). 선험적 지식은 분석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필수적인 명제들은 세계에 대한 진리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념들의 내용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며, 가치에 대한 정의주의의 원칙이란 한마디로 가치에 대한 명제들은 진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표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오수길 외, 2009).

## 2) 행정학에서의 구성주의

구성주의는 여러 원천으로부터 흘러 들어왔으나 주로 해석학이나 변증법에 힘입은 흐름이다. 현상학에 뿌리를 둔 슈츠(A. Schutz)의 연구는 어떤 사회에서 각 개인이 공유하고 있는 당연히 그러하다고 여기는 경험세계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연구로 프랑크푸르트(Frankfurt) 학파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Hacking, 2000:25). 해석학의 관점은 표현이 곧 삶이고 여기에는 심리적, 신적, 문법적(grammatic) 요소로 구성된다. 오해의 가능성을 염려하고 일반정립을 이룰 수 없다는 전통이론에 따르면 본문(text) 저자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였다. 예컨대, 김소월의 경우 김소월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에 관심을 두었으나 오해도 이해라고 본다. 객관적임은 없으며, 법칙정립적인(nomothetic) 성격이라기보다는 개성기술적(ideographic) 성격이 이 흐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구성주의는 구성되어 나타난다는 것으로 그 전제는 ‘①오직 폐쇄된 체계만을 인식할 수 있다. ②인식은 관찰자의 구성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좀 더 부연하면, 담론의 출발은 체계와 환경의 구분이고 전자는 후자에 대해서만, 후자는 전자에 대해서만 규정될 수 있다. 인간은 구분하고 명명하는바, 즉 차이를 도입하여 그것들을 더 세분시키며 작동한다. 이때 하나하나의 구분들은 스스로 하나의 맹점을 가진다.<sup>16)</sup> 구성주의 시각으로 언어는 기호체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통제된 행동조율을 위한 도구로서 간주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언어는 구분들을 명명하고, 간주관적으로 매개하고, 사회적으로 과정보화해 주는 가운데 행동을 조절한다. 공동체적인 현실을 개체 속에서 구성한다. 언어는 사회의 층위에서 문화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의미들을 통해 개인들을 사회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제도로 그 공동체에 기여한다.

## 3) 변형생성주의와 후기 비트겐슈타인

해석주의는 실재론이며 해석의 대상들이 경험적으로 검증될 때 객관적 실재가 된다(정성관, 2005). 이 점에서는 실증주의와 같다. 의미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에 관한 이론들이 변형생성주의와 후기 비트겐슈타인 이론이다. 촘스키(Chomsky)에 따르면 변형생성이론은 언어게임이론과 같으며(강진호, 2010),<sup>17)</sup> 더 나아가 언어게임이론은 한센(Hanson)의 이론과 같으며(이좌용, 1980:p.161 주 참조), 쿤(Kuhn)의 함축 즉, 공동체의 구성원의 신념체계에 기초해서 선택한다는

16) 이 이론에 따르면 대상은 어떤 일차적인 소여가 아니다. 지각하고 사유함은 우리에게 그저 단순히 현실의 상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에 부여하는 그 상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진리의 판정은 세계 또는 이성인 아니라 그때그때의 집단지식일 뿐이다. 우리는 시각의 맹점을 벗어날 수 없다. 즉 우리가 현실로서 간주하여 경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언어 및 문화에 의해 구축되기 때문에 그 지식은 우리가 경험상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는 생존에 유익한 지식이다. 인식한다는 것은 외부세계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작동상의 폐쇄) 어느 정도는 그 인식체계가 행하는 조작들의 목록화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자 그대로 그 세계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사는 그 세계를 생성한다(Schmidt, 1987).

17) 본문과 같은 촘스키(Chomsky) 자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언어의 본성으로부터 이론도출 가능성에 대해 촘스키는 긍정하는데 비해 비트겐슈타인은 반이론적(反理論的)인 언어관을 갖고 있다. 둘째, 언어의 의미에 있어서 비트겐슈타인은 공동체 성원들 간의 일치에 토대를 둔 공적인 어떤 것으로 보는데 비해 촘스키는 그렇지 않다. 셋째, 촘스키는 내재하는 이성에 기초를 두고 인지에 기반하나 비트겐슈타인은 (본인은 부인하지만) 논리적 행동주의에 기울어져 있다(강진호, 2010).

것과도 역시 통할 수 있다. 변형생성주의와 후기 비트겐슈타인 이론 사이의 차이는 촘스키가 어떤 실재나 가정에 입각해 있는 반면, 비트겐슈타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Garver and Lee, 1998:204). 그에 따르면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하고 그 설계도대로 실제 건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이 설계도가 언어이며 그 검증도구는 경험이라고 한다. 이 언어는 선형적이지만 그 검증도구는 경험적이다(조중걸, 2009:164). 이 점에서 촘스키도, 포퍼도 같은 견해를 지닌다(Chomsky, 1986; Popper, 1972:43-44).<sup>18)</sup> 이는 상식에 기초하여 과학의 길을 찾는 방법과 어울린다(Fodor, 1975,1981,1984; Popper, 1972: 서문). 그 근거는 과학적 지식이란 단지 일상적 지식 또는 상식적 지식이 발전된 것에 불과하다는 믿음이다(Popper, 1972: preface).<sup>19)</sup> 이러한 관점을 발전시킨 오스틴(Austin)의 일상언어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Llewelyn, 1986:100), 언어의 사용의 일차적인 기능은 타인들과의 의사소통이고 이 과정에서 개인들의 경계는 필연적으로 타인과 겹치는 원을 형성하게 된다. 이는 개인들의 사적 영역이 중첩되는 것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해석의 공간에 진입하게 된다. 이 해석의 공간에서 타자와 상당수의 믿음들을 공유하며 내면적으로는 타인과 유사한 존재가 된다. 이를 통해 인간 본유의 자연적 이기심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여기서 총체적 의미론이 등장하게 되고(남경희, 1997:473-474), 이는 상호주관성과도 통할 수 있다(Searle, 1998:184). 즉 의미는 공통으로 묶을 상호주관성의 개념이며 상호주관성의 근거는 여기에서 주장하는 변형생성주의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변형생성주의는 기존의 의식을 넘어서서 잠재의식이나 무의식도 중요시하며,<sup>20)</sup> 새로운 변형을 통하여 의미나 코드를 생성하는 패러다임이다. 이는 인간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존의 사실세계와 논리세계의 양분론이 아니라 중간세계를 인정하며 연구의 기본 단위를 체제나 행태가 아니라 모듈(module)로 보는 것을 함축한다. 더 나아가 이 이론은 창조와 소통을 그 핵심으로 한다. 모듈 이론에서 특화된 조직이 있다고 생각함이 타당하다.<sup>21)</sup>

변형생성주의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L_1$ 의 언어 체계에서는 어떤 현상 a에 대해 오직 한 개념 S로 표현하는 데 비해,  $L_2$ 의 언어체계에서는  $R_1, R_2, \dots, R_n$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할 때, 어떤 경우에 S가  $R_1$ 으로 번역되고, 어떤 경우에 S가  $R_2$ 로 번역된다. 혹은  $L_1$ 의 언어 체계에 대해  $L_2$ 의 언어체계에서는  $R_1, R_2, \dots, R_n$  등으로 세분화된다(이한구, 2011:178-119). 즉  $L_1$ 의 언어 체계가 심층(deep structure)이 되고  $L_2$ 의 언어체계가 표층(surface structure)이 되는데, 이는 <그림 1>의 지식의 성장 모델의 관점에서는 의미란 해석과 재해석을 통해 변형되거나 생성된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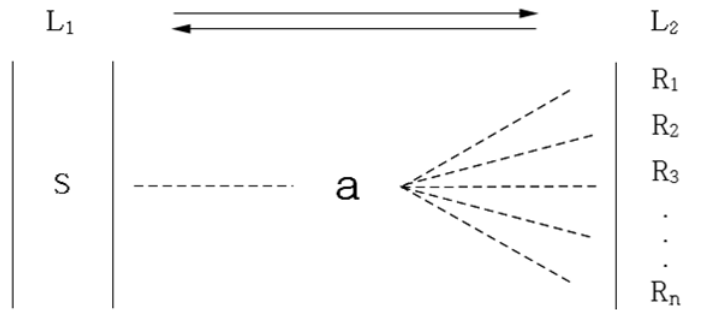
18) 포퍼(Popper, 1972:43-44)는 언어라는 용어 대신 명제(statemen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19) 물론 Popper는 여기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지식의 성장이란 상식적 지식이 과학적 지식으로 바뀌어야 함을 의미하며 후자는 전자를 초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Popper, 1972:preface).

20) 자연과학에 따르면 감각 기관으로부터 들어온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원래의 정보를 추론해서 복원하는 무의식적 과정이 의식에 앞서 존재하는데, 무의식적 추론(unconscious inference)의 결과만 의식에 떠오른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무의식적 추론은 불완전한 정보를 복원해서 완전한 정보로 만들어주지만, 가끔은 더 엉터리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후술하는 바처럼 프레임이론을 재검토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

21) 모듈이란 자체 내의 특수한 원리에 따라 그 단위가 운영되는 특수한 구조를 말하는데, 전문가적 지식으로 운영되고 그 자율성이 보장되는 하위체계이다(조명한, 1985:28).

〈그림 3〉 변형생성의 의미



출처: 이한구(2011:178)

문제는 Quine이 주장하듯이, 어느 경우든 번역은 불확실한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이한구, 2011:179), 이는 심층과 표층의 불일치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심층과 표층의 불일치를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해 논리형태가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이다. 이 심층을 본질로 보고 이 표층을 현상으로 보아 이론을 전개하면 의미의 생성이 결정되는 화용론이나 구조주의, 현상학, 기호론의 이론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 그 차이를 드러낼 수도 있다.<sup>22)</sup>

이 변형생성주의에 따르면 학문적 관점에서는 ‘개념은 그 학문의 의미 분야에 의해서 조성되고 그 학문체계를 결정하는 원리들 속에서 그 개념의 가치를 인정받는다’(Chomsky, 1966:20). 이는 합리론에 기초하여 인간 이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상대주의와 차이가 나고, 기존의 지식에서 변형되어 새로운 지식이 생성된다는 관점에서 구성주의와 차이가 있다. 변형생성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표층과 심층을 구별하는 것인데 전자는 ‘지각한 것’이거나 ‘지각할 수 있는 것’이며 후자는 ‘지각할 수 있는 것 그 이면에 있는 것’이다.<sup>23)</sup> 표층과 심층의 구별을 통해 ‘실제로 행함’은 ‘할 수 있음’으로, ‘할 수 있음’은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환된다.

이를 행정학에 응용하면, 행정이란 이러한 일상적 지식에 기초하여야 하고 진술에 포함되는 영역들, 예컨대 단언, 예측, 보고라든가, 지시에 포함되는 영역들, 예컨대 요청, 질문, 금지, 허가, 자문 등이 있으며 그 밖의 행위들로 이루어진다. 행정은 ‘할 수 있음’과 ‘실제로 행함’을 포괄하여야 하고, 행정의 원천은 ‘지각할 수 있는 것’과 ‘지각할 수 있는 것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이기에 행정 이론은 이들 모두를 다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부성이나 공공성을 실제로 어디서 경험하는가이다. 그것은 생활세계에서 변형되어 생성되어 나옴을 의미한다. 예컨대, 출입국에서의 어떤 사소한 문제로 외국 공항에서 억류되었다가, 어떤 외교적 절차를 거쳐서 석방되는 경우에 실제행정을 체감할 수 있고 행정의 실재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의 실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생활세계에서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보편성과 현실적응가능성을 통합적으로 설명

22) 따라서 소쉬르의 관점에 따르면 통시적 관점이 아니라 공시적 관점에서 논의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통시적 관점에 어떤 의심을 품는 것이 아니고 논의의 관점이 분명해야 함을 뜻한다.

23) 이를 Chomsky(1966,1986)는 각각 언어능력(language faculty: underlying competence)과 언어사용(language use: performance)이라는 용어를 쓴다.

할 수 있다는 점이다.<sup>24)</sup> 즉 행정을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며, 개별 국가 단위의 행정이 설명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현상도 여기에 기초하여 설명할 수 있다.

### Ⅲ. 행정학의 명제

#### 1. 명제의 유형

행정학에서의 명제들은 철학에서의 명제들처럼 엄격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다. 그 이유는 사회과학의 특성상 시간적 제약이나, 공간적 제약, 또는 속성적 조건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모든 지식은 명제로 표현되며 제시된 명제가 유의미한가 아닌가, 또 유의미한 명제가 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 명제에 대해서만 제기되는 문제이다(Brown, 1977:16). 명제들끼리의 관계는 논리학이나 수학에서 유래하는 지식에 기초하면 결정적인 반증이 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명제들의 의미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즉 정당화의 논리가 필요하다(김여수, 1980:70). 포퍼에 따르면 과학이론이 진리를 목표로 하고 지향하는 것은 사실이나 진리를 이미 획득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진리보다도 경험적 방법에 의해 확증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이론이나 명제가 지니는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박만엽, 2008). 즉 명제들의 관계에서는 논리성이라는 잣대와 경험에 의해 수락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의미한 명제라는 전제가 요구된다.<sup>25)</sup> 이를 기초로 명제 기본식을 구성한 것이 아래 <표 3>이다. 여기에는 명제의 조건이나 전제, 주체, 양상, 서술이 포함되고, 이는 어떤 화행을 지향하는지가 나타나게 된다.

<표 3> 명제 기본식

조건이나 전제	주체(S)	양상	서술(P)	화행
① 시간적 조건 ② locality ③ 속성적 조건	① 단칭 명제 ② 특칭 명제 ③ 전칭 명제	① 필연성/ 가능성 ② 의무 ③ 추측	주체나 대상에 기 능과 진리값 부여	① 진술(단언, 예측, 보고 등) ② 지시(요청, 질문, 금지, 허가, 자문 등) ③ 그 밖의 행위

출처: 미우라(1997) 변형, 정리

전통적으로 명제들은 단칭 명제와 특칭 명제 및 전칭 명제로 구분되어왔다. 단칭 명제는 확정적인 한 대상이 어떻다는 것을 언급하는 반면, 전칭 명제는 어떤 종류의 대상 일반을 언급한다.

24) 이는 보편문법과 그 보편문법이 매개변수(parameter)에 의해 개별 문법에 응용되는 것으로 이른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 가설의 의미도 여기에 있다.

25) 포퍼와 같은 반증주의자는 이론과 경험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론을 정당화하려고 애쓰지 말고 새로운 이론을 찾아 떠나라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쿤(Kuhn)의 비판은 과학의 역사상 이론과 경험의 불일치가 이론을 거부하는 이유가 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쿤의 이 비판으로 반증주의자들은 반증된 이론에 새로운 옷을 입히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나타난 방법론이 라카토스의 과학적 연구프로그램 방법론이다(김보현, 2011). 촘스키의 언어이론도 이 방법론에 기초한다(임기대, 2012).

따라서 보편 명제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특칭 명제는 확정되지 않은 무엇이 어떻다는 것을 언급한다. 예컨대 ‘이 장미는 붉다’는 주장은 단칭 명제인 반면, ‘모든 장미는 붉다’는 주장은 전칭 명제(보편 명제)이며, ‘어떤 장미는 붉다’는 주장은 특칭 명제이다(이한구, 2011). 여기서 행정학에서의 보편성과 개별성의 문제가 나온다. 즉 행정학에서 수없이 많이 논의되는 주장들은 개별 개념으로 보이는데 이들을 보편 개념으로 상승시키는 것은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다(이한구, 2013).<sup>26)</sup>

## 2. 논리형태

논리학에서는 논리형태(logical form)를 좁게 잡아서 명제들 사이, 또는 그 안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한다<sup>27)</sup>(소홍렬, 1982; Jeffrey, 1967). 따라서 먼저 명제를 살펴보고 이어서 논리형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명제는 둘로 나뉘는데 관념의 관계에 대한 명제와 사실에 관한 명제가 그것이다. 전자는 논리학과 순수수학의 선험적 명제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경험세계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후자이다. 즉 경험적 사실에 관한 명제인데,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이들을 참과 참이 아닌 것으로 구현한다(Ayer, 1946).

명제 분류를 달리하면, 모든 의미 있는 명제들은 두 종류로 분류되는데,<sup>28)</sup> 하나는 경험적 명제이고, 다른 하나는 동어반복적 명제이다. 경험적 명제는 일상생활의 사실적인 명제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자연과학의 명제들이며, 동어반복적인 명제는 전형적으로 수학이나 논리학 같은 데서 접하게 되는 것들로서 우리의 개념에 관한 것일 뿐 사실세계에 관한 명제가 아니다(이한구, 2013).<sup>29)</sup> 그 중의 중요한 이슈가 의미의 기준과 과학의 기준과의 관계이다(이한구, 2011).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과학기준

분석적 명제	논리적 명제	과학외적 명제 (non-scientific statements)
종합적 명제	형이상학적 명제	
		경험적 명제

출처: 신중섭(1990:32)

26) 이런 점에서 실제로의 과학과 사회과학의 관점이 나뉘는 듯하다. 실제로는 과학적 이론이나 법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차별적 주장이라는 것이 과학철학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사회과학적 관점으로는 이를 무조건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더 논의해 보아야 하는 것이 본문에서 언급될 중범위이론인 듯하다(Merton, 1968:3-72).

27) 논리형태를 글의 전개방식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글의 전개방식에 대해서는 (Decker and Schwegler, 1992)나 장신재(1993)를 참조하라. 전자는 illustration, classification, comparison and contrast 등 13 가지를 제시하고 있고 후자는 narration, analogy, description, induction, deduction 등으로 나누고 있다.

28) Brown(1977:23)은 넷으로 분류한다. 순수형식적 명제(항진명제와 모순명제), 원자명제(atomic propositions), 분자명제(molecular propositions), 사이비명제(pseudo-propositions)가 그것들이다.

29) 모든 의미 있는 명제는 경험적 명제거나 동어반복적 명제라는 것 중 어느 하나이지 않으면 안 된다. 형이상학적 명제는 이 둘 중 어느 것에도 분류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의미한 명제가 된다(이한구, 2013).

논리실증주의 입장에서는 의미의 기준과 과학의 기준은 동일한 것으로 전통적인 형이상학은 무의미한 명제들이기에 비과학적인 명제들이다. 만약 달리 보는 반증주의 입장에서는 신화와 철학과 과학은 모두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있다고 볼 수 있으며(이한구, 2011), 형이상학적인 관념들도 해석에 따라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행정학에서의 가치 등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다. 행정학에서의 논의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차별적 주장이라는 것까지 수용할 수 없으므로, 논증 가능성의 원리를 어느 정도까지인가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도 과학의 기준과 의미의 해석의 문제가 나타난다.

이어서 논리형태를 살펴보자. 명제들 사이, 또는 그 안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논리형태인데, 예를 들면,

1. 높은 농도의 유체는 낮은 농도 쪽으로 확산한다.
2. 비커 바닥에 있는 잉크방울 a 내의 잉크 농도는 비커 내의 물이 차지하는 부분의 잉크 농도보다 높다.
3. 그러므로 비커 바닥에 있는 잉크방울은 비커 나머지 부분으로 확산한다.<sup>30)</sup>

명제 2는 사실을 기술하고, 1은 자연현상이나 법칙, 3은 사실 내지는 예측된 상태를 기술한다. 좁은 의미의 논리형태(Logical form)는 각 명제 내의 구조, 그리고 명제 간의 관계가 가장 잘 드러나도록 도식화한 결과이다. 따라서 논리형태를 내적 논리형태와 외적 논리형태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 1) 내적 논리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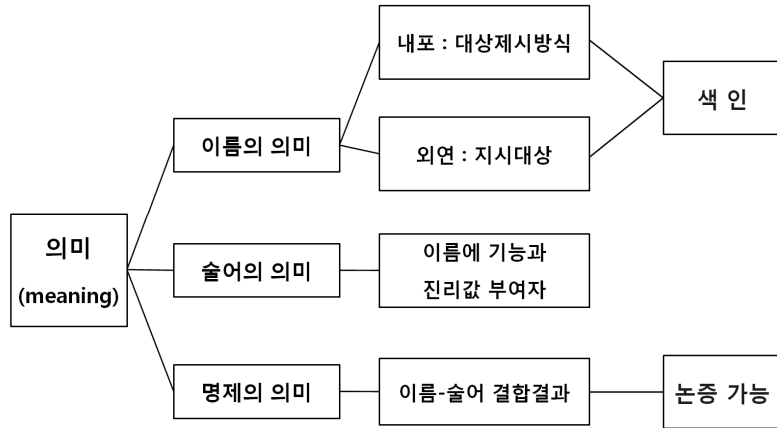
앞서 논리학에서는 논리형태(logical form)를 명제들 안의 논리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이를 내적 논리형태라고 한다. 세계는 사물의 총체가 아니라(not of things), 사실의 총체(but of facts)라는 명제에서 그 세계는 기술된 세계(described world)인데, 행정학에서의 그 의미는 행정현상이 행정학의 연구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필요로 함을 함축한다. 그 첫째는 언어화이다. 언어현상으로 바뀌면서 학문으로의 과정이 시작되며, 언어현상으로 바뀔 때 언어적 문법과 문화적 문법에 기초한 변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 둘째는 연구의 의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 Frege의 이론에 따르면 의미란 지시 의미(referent) 뿐만 아니라 내포 의미(sense)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전자는 지시대상이고 후자는 대상 제시 방식이다. 후자를 언어학적으로 시니피앙이라고 하고 이름의 의미를 시니피에라고 한다.

30) 1.  $(\forall x)(Hx \rightarrow Dx)$  [For all x, if Hx “the concentration of x is higher at its place than its concentration in other places around it” then Dx “x diffuses”.]

2. Ha

3. Da [by 1 and 2]로 된다.

〈그림 4〉 내적 논리형태의 의미



출처: 문장수 (2012) 수정

색인은 내적 논리형태의 재료를 제공해 준다. 색인을 통하여 가교언어를 형성할 수 있고<sup>31)</sup> 또 내재언어로 발전될 수 있다(이광석, 2013). 즉 행정학에서의 색인의 구성요소들은 그것이 내포하는 의미와 지시대상을 가지며, 아울러 의미역을 지정하게 된다는 의미이다(<그림 2> 참조). 이를 명제 수준으로 상승시켜 행정현상이 어떻게 언어체계에 포함되는가를 알아야 한다. 이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타르스키(Tarski)가 제안한 의미론적 진리관으로 T-동치(同値)공식으로 표현된다(김여수, 1980:90). 이는 대상언어와 메타언어라는 두 유형의 개념에 기초한다.<sup>32)</sup>

타르스키의 T-동치공식은 단순한 동어반복이 아니라 행정학에서의 명제와 행정현상의 관계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전환한다. 여기서 후술하는 바처럼 이론언어로 되어 있는 문장을 관찰언어로 전환하고 그것이 경험적으로 사실인지를 검증이나 반증, 해석, 변형생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논하기 전에 ‘경험적으로 사실인지’를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를 논의하여야 하며, 그 타당성의 정도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제문 형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주요어 정도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 명제(주제문)를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논증 기능을 되살리며 따라서 논증이 가능해진다.

31) 가교언어는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던 언어를 이끌어 들였으나 아직 내재언어가 되지 않은 유형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의존형식으로 이루어져 이들의 결합을 통해 내재언어가 되는 유형이다.

32) T-동치공식의 의미는 본래 통일적이던 언어에 계층을 정하여 대상언어(object language)와 메타언어(meta-language)로 구분한다는 것이다(김여수, 1980). 이러한 언어계층론적 장치를 통하여, 하나의 대상언어의 문장에 대하여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을 밝히고 있다. 메타언어는 대상언어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언어이다. 어떤 대상언어의 문장 S가 메타언어로 번역된 문장을 P라고 한다면, ‘p is true if and only if p’로 정의되며, 이 때 비로소 진리를 말할 수 있다. 대상언어는 사실에 대한 명제들만으로 구성되며, 언어적 표현 그 자체에 대하여 진술하는 진리, 허위, 지시, 의미 등의 이른바 자기지시적(self-referring) 표현들은 모두 배제된다. 반면, 메타언어는 대상언어의 문장에만 적용되는 진리, 허위 또는 대상언어의 기타 표현들에 적용되는 지시, 의미 등의 의미론적 표현들뿐만 아니라 대상언어 전체를 동시에 포함한다. 여기에 기초하면 이른바 거짓말쟁이의 역리는 간단히 해결된다(김여수, 1980).



2) 외적 논리형태

명제들 사이의 논리형태를 외적 논리형태라고 한다. 행정학에서의 외적 논리형태는 인과론적 설명, 동기론적 설명(이유), 의미론적 설명(이해), 귀납과 연역 등으로 나눌 수 있다.<sup>33)</sup> 여기서는 귀납과 연역을 설명해 보기로 한다. 일반화의 이론인 험펠은 과학에서 하는 작업은 ‘왜?’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연역-법칙적(deductive-nomological) 모델과 귀납-통계적(inductive-statistical) 모델을 제시한다(미우라, 2011:12). 내용은 다르나 이와 유사한 관점은 Kuhn의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이나 반 프라센(Bastiaan Cornelis Van Fraassen)의 화용론적 설명이론(pragmatic explanation theory), 더 나아가 확률적 설명모형이나 가능세계의미론에서도 볼 수 있다(미우라, 2011: 13). 여기서는 고전적 설명이론인 험펠의 설명이론을 검토해 본다. 한 사건이 다른 한 사건의 원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인데, 논리적인 형식으로 표현하면 [①법칙 C종류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E종류의 사건이 일어난다. ②조건 C사건이 일어났다. ③결과 E사건이 일어났다.]와 같이 된다(소홍렬, 1980).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일상적으로 말하는 <C사건이 E사건의 원인>이라는 것으로 완전하지는 않다. 그 이유는 예측의 관계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sup>34)</sup> 따라서 예측의 논리적 형식을 통해 그 사건들을 지배하는 법칙이 명시되어야만 한다(소홍렬, 1980).

이제 행정학에서는 부분적으로 응용될 수 있으며 경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귀납의 원리를 살펴본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될 수 있다<sup>35)</sup>(이한구, 2013; 강신택, 1981:100).

〈표 5〉 사례와 귀납 및 보편화

귀납의 원리는 사례 1의 경우에 성공적으로 작용했다.  
 귀납의 원리는 사례 2의 경우에 성공적으로 작용했다.  
 ⋮  
 귀납의 원리는 사례 n의 경우에 성공적으로 작용했다.

---

∴ 귀납의 원리는 항상 성공적으로 작용한다.

33) 열거된 앞의 셋과 귀납과 연역은 동등하게 나열될 수 없을 것이나 여기서는 외적 논리형태의 하나로 같은 위치에서 본다. 이와 관련한 논의이지만 다른 유형의 설명을 전개한 것은 Taylor(1973)을 참조하라.  
 34) 예측의 조건이란 것도 설명의 조건과 꼭 같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은 예측도 가능해야 한다(소홍렬, 1980). 예측의 논리적 형식은 [①법칙 C종류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E종류의 사건이 일어난다. ②조건 C사건이 일어났다. ③결과 E사건이 일어날 것이다.]와 같다(소홍렬, 1980). 여기에서의 문제는 자연과학을 바탕으로 한 험펠의 설명이론이 사회과학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이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와 창의력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간행동이나 창조적인 인간행동은 예측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원인에 의한 설명도 불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이한구, 2011). 또 그 연장선상에서 행정학에로의 적용가능성이다.  
 35) 이러한 정식화가 보여주는 것은 과학철학이나 연역논리에서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한다(이한구, 2011). 보편명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어떤 주장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는 관찰되는 것은 개별적인 사실인데, 이것과 개별적인 사실을 넘어서 보편적인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칭 명제에서 보편 명제로 어떻게 이행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이한구, 2011).

이 도식은 개별적 사례에 적용되는 단칭 명제에서 모든 것에 적용되는 보편 명제로 어떻게 이행해갈 수 있는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행정학에서는 이러한 정도에까지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갈등을 논의한 불안사태를 <표 5>에서 **사례 1**이라고 하고, 밀양사태를 <표 5>에서 **사례 2**라고 하고, 제주도의 강정사태를 <표 5>에서 **사례 3**이라고 한다면, 이들에 관해 각각의 논의는 적용하였으나, 이들을 공통으로 하는 귀납의 원리(즉 **사례 1, 사례 2, 사례 3**의 공통)을 찾을 정도로 명제화하고 논리형태를 갖춘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간 행정학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의가 확률론과 중범위이론이다. 전자에 초점을 맞추면 정당한 귀납에 의해 도달하게 된 일반화가 전적으로 참인 것으로 확인될 수는 없지만, 개연적인 참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귀납의 근거가 되는 관찰사례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찰이 행해진 조건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결과에서 도출되는 일반화가 참이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이한구, 2011).<sup>36)</sup> 또 다른 근거는 Merton(1968: 50-72)의 중범위이론으로 이를 실제로 관료제에 적용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나(Heady, 1966), 행정개혁에 관해 몇몇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비교한 연구(Ongaro, 2013; 2009) 등은 행정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행정학에의 적용을 통해 의미를 창조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자연과학에 적용되는 엄격한 논리학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행정학적 변형이 필요하게 된다. 즉 논리형태의 개념을 넓게 잡아서 명제의 주장을 어떻게 지지하느냐 또는 반박하느냐, 또 학문공동체에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포괄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행정학의 많은 논문들이 지금은 주요어(key word) 몇몇만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요약이나 그 결론 등에서 이를 명제형태로 제시하자는 것이 이 글이 주장하는 요지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논증이 가능하며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행정학의 성격 규명이 가능하리라는 것이다.

#### IV. 논증과 행정학의 실제 모습

명제는 옳은지 그른지 또는 목적에 적합한지, 적용가능한지를 검증 받아야만 한다.<sup>37)</sup> 이에 관한 논의가 논증으로, 논증이란 결론이 정립되는 방식인 논변을 다루며 논변에 관한 지식으로 논리에 관한 문제(Toulmin, 2003:1-2)로 정의되거나,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히는 것으로 정의한다(장인봉, 2003). 여기에서는 검증과 반증, 그리고 해석을 포괄하는 것인바, 이는 앞서 언급한 사물해석과 의미해석의 차이의 역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서로 논쟁을 벌이며 자신

36) 이런 확률론에 기초한 귀납의 원리는 다음과 같이 정식화된다고 한다. “만일 다양한 조건의 변화 속에서 많은 a가 관찰되었고 이 관찰된 a가 예외 없이 모두 b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모든 a는 b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행정학에서 이 정도라도 진척된다면 상당한 과학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37) 이 이슈도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과학적인 것에 대한 선결적 전제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 라카토스는 meta-methodology라는 개념으로 처음으로 정식화하였다. 이를 통해 귀납주의, 규약주의 반증주의, 연구프로그램방법론 등을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이봉재, 1993).

의 이론을 잘 개진한 이들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를 주장한 논리실증주의, 반증을 주장한 포퍼와 후기실증주의, 해석주의를 주장한 쿤이나 하버마스이다(Denzin and Lincoln, 2011:98). 이제는 이를 차례로 살펴보자.

## 1. 검증

검증이란 연역적인 것이거나 경험적인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둘은 상호보완적이다. 여기서 검증은 두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는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설명된 것의 경험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 둘을 고려하면 연역논리를 통해 전제에서 결론으로 진리를 이전시킬 수 있으며, 결론이 잘못되었다면 역진시켜 그 오류를 규명할 수 있다고 한다(한상진, 1996; Popper, 1959; Adorno, et al., 1976). 이는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실현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확률적인 의미로 입증가능성을 주장하는 그룹도 검증 원칙을 고수한다(송하진, 1985). 지식의 성장에 있어서도 지식은 누적적, 축적적으로 성장해간다고 주장하며, 이들이 주장한 검증원리에 따르면 한 명제의 의미란 그 명제의 검증 방법이다.<sup>38)</sup>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이러한 검증원리는 의미의 기준과 과학의 기준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를 혼동한 잘못이 있다고 한다.<sup>39)</sup>

## 2. 반증

반증주의 인식론은 비판적 합리주의(Critical Rationalism)가 주장하는 이론으로 과학이 추구하는 지식의 성장이란 진리에 끊임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보는 진리근접성(verisimilitude)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인간 이성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주장으로 인식의 어떤 단계도 앎의 최종 단계로 간주되지 않으며, 모든 인식은 합리적 비판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sup>40)</sup> 이는 우리의 앎은 비판적 시험과 논의에 의해서 증진되고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그 핵심적 내용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며, 다만 추측할 뿐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 추측이 엄격한 비판을 견디어낸다면, 그것 자체가 그 추측이 옳다는 충분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증주의는 이를 위해 ‘적시에 오류를 교정하고자 하는 이 방법을 따르는 것은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규칙일 뿐 아니라, 바로 도덕적인 의무’라고 본다(이한구, 2011). 그러나 포퍼의 주장과는 달리 하나의 포괄적인 이론이 다른 포괄적인 이론으로 교체되는 과정으로 보는 피아에라벤

38) 검증(verification)이 논리실증주의자들인 비엔나 학파의 의견인데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명제의 진위가 확인될 수 있고, 또 그러한 명제만이 과학적이라고 본다(송하진, 1985). 따라서 명제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즉 명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명제를 검증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이다. 만일 명제를 검증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면, 그 명제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기준이 갖는 특징은 주어진 어떤 단어나 명제를 보다 확실한 요소들로 분해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예컨대 논리실증주의는 ‘모든 장미는 붉다’는 보편 명제를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사실들에 관한 명제들, 즉 ‘장미1은 붉다’ ‘장미2는 붉다’ …… ‘장미n은 붉다’는 단칭 명제를 모두 모은 연접으로 바꿀 수 있다는 환원주의이다(이한구, 2013).

39) 형이상학에 대한 거부는 금세기에 처음 등장한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그것이 무의미한 명제기 때문에 배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실증주의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한구, 2013).

40) 반증을 어렵게 하는 원인들을 잘 설명한 Taylor(1973)을 참조하라.

드(Feyerabend)의 주장에 더 타당성이 실린다고 한다(Popper, 1979; 박만엽, 2008). 그러나 행정학에서는 아직 그 수준까지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기에 이 검증이나 반증이 필요할 것이다.

행정학에서도 이런 논의가 진전되어 학문적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행정학이 논리적 체계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실증주의의 검증이나 반증을 한 범주로 묶어서 이 과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 3. 해석

‘ $2 \times 2 = 4$ ’ 라는 명제의 의미 내용이나 손짓이나 몸짓 또는 얼굴 표정은 직접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행위를 일으키는 동기에 대한 인식은 이와는 다르다. 동기는 행위자 자신이나 관찰자에게 행동의 유의미적 근거로 보이는 의미의 연관성이기 때문이다(차인석, 1980; Taylor, 1973). 비엔나 학파의 검증을 비트겐슈타인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에(Monk, 2013:414), Connolly & Keutner(1988:15)은 해석의 유형들로 검증, 반증 및 확증을 들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논증이란 정도의 차이로 보아야 함을 뜻한다(송하진, 1985). 또 어떤 경험주의자들은 의미도 경험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고 따라서 이론적 용어의 의미는 관찰가능한 것에서부터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송하진, 1985). 이에 해석도 논증의 유형 중 하나로 첨가될 수 있다. Ogden & Richards(1923:162)도 논의하듯이, ‘의미는 결과(consequences)에 의존하고 진리는 의미에 의존한다’면 이 또한 해석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사회적 사건에 관한 인식은 개별적인 구체적 상황에 있어서 구체적인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차인석, 1980). 이를 사회과학적 연구에서의 가치관련성이라고 하는데, 그 선험적 전제는 우리가 주위세계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태도를 표명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문화적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부여에 있어서 이 의미가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적 삶의 어느 현상을 그것에 비추어 판단하도록 한다(차인석, 1980). 이를 해석이라고 한다.

### 4. 행정학의 실제 모습

행정학에서 진행되어 온 논증을 검증형, 반증형, 해석형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본다. 검증형은 논문제목에 가설검증이라는 어휘가 들어가 있는 논문들을 골랐다. 여기에는 이민호(2008), 김복태·조경호(2012), 장덕희(2010) 등이다. 이민호(2008)에서는 OECD 29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1992년에서 2001년 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시점에서 연금이 세대 간 형평에 미치는 문제, 다시 말하면 다원주의적 관점에서 고령세대에 대한 연금지출규모 증대가 저연령세대에 대한 사회적 지출을 감소시킨다는 ‘the-old-eat-the-young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는 저연령층에 대한 사회적 지출수준을 대변하는 개별 국가의 초등 교육비 지출 수준이나 가족급여에 대한 효과 분석에 있어서도 전년도 개별 국가의 연금지출 수준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그 방향성은 개별 국가가 취하고 있는 복지레짐에 따라 달라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보수주의적 복지레짐의 국가들은 연금지출

의 비중 증가가 이듬해의 초등교육비 지출규모의 감소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the-old-eat-the-young의 가설을 긍정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한편 김복태·조경호 (2012)는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에 따른 조직성과에 대해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이 사업체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업체 연령, 사업체업종, 근로계약서 작성,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 사업체 규모 변수를 통제하고 이직률과 생산성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독립변수인 일·가정양립제도 도입 정도는 회귀계수 0.200가 유의수준 0.1수준에서 유의하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사업체일수록 직원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준다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고 한다.

반증형은 어떤 명제에 대해 그것이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해 보이는 것이지만 이런 유형의 논문은 행정학에서는 드물다. 대체적으로 논문의 저자가 가설을 몇 개 세워 놓고 일부는 검증하여 수락하고 일부는 반증하여 기각하는 모습을 띤다. 따라서 논문이나 저서 전체의 명제를 반증하는 유형은 행정학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에 관한 유사한 것은 그나마 새마을 운동에 관한 논증이다. 새마을 운동에 관하여 두 유형이 있는데, 그 하나는 새마을 운동이 1970년대가 아닌 ‘그 이전의 새마을 운동이 있었으며, 그 공헌은 민중사회와 각자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영미, 2009:373). 또 다른 명제는 ‘체제의 위기와 함께 국민적 동의를 기반이 약화되어 그런 점을 보완하려는 정치적 운동’이라고 주장한다(조희연, 2007:165). 대체로 후자의 명제에 대한 반증의 입장에서 ‘새마을 운동은 잘 살기 운동’이라는 근거를 제시한다(홍기용 외, 2013; 노화준, 2013; 정갑진, 2008).

해석형은 역사적 흐름을 정리하고 그 함축을 얻으려는 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그 이론적 근거는 Yanow(2000)나 Feldman(1995)에서 찾는다. 그 대표 논문으로 운영진(2013), 백완기(2005) 등이 있고 여기서는 전자의 주장을 살펴본다. 이 논의에 따르면 행정학이 학문적 종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한다. 이 전제에서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행정학의 역사로 본다. 이를 1970년대의 ‘토착화 논의’와, 2000년대 중반의 ‘한국화 논의’를 거쳐 최근에는 ‘한국적 행정연구’로 이행한다고 해석한다.

## V. 제언: 결론에 대신하여

행정학을 응용학문이라고 하는데, 응용학문으로서 행정학이 문제지향적이고 처방지향적인 성격을 가진 까닭에 연구자들이 기존 이론의 입증에 매달리기보다는 새로운 주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집중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행정학은 교육행정, 환경행정, 복지행정, 기후변화행정 등으로, 다양한 영역에 한없이 확장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영역에서의 이론들과의 관계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도 함축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학문으로서의 행정학은 당연히 과학성의 요구가 새로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선 발견된 지식들을 논증하는(confirmation) 노력이 필요하다. 입증을 위해서는 우선 지식의 명제화를 시도하고 명제에 대한 논리형태와 엄밀한 논증을 통해 확증된 지식의 축적

을 도모해야 한다. 현재 행정학 분야에서는 심사과정에서 3인 혹은 5인의 심사위원(박사학위 논문의 경우)에 의한 입증만 이루어지면, 더 이상의 입증은 없고 그 이후에 논의의 활성화는 없는 듯하다. 따라서 1회용으로 실린 논문으로 끝나고 있다. 주장된 명제에 대해 논쟁의 활성화가 필요한바, 학계의 오랜 관행으로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나, 논증의 활성화를 위해 또 그 이후 받아들여진 주장의 활용을 위해 논증에 관한 논의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중의 하나로, 현재 주요어(key words) 중심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발견물을 명제화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연구자들은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더라도 상당한 편수의 논문의 발견물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논증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자는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관심이 가는 명제들을 연구 주제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발견물 혹은 새로운 발견물들이 검증이나 반증, 또는 해석을 통해 그것이 유의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진리에 그만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논의과정 자체를 통해 방법론의 정치화(精緻化)가 가능해질 것이고 이를 통해 행정학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강상진. (2010). 아우구스티누스와 고전적 덕론(德論)의 변형, 「인간·환경·미래」(제5호), pp.135-156.
- 강신태. (2005). 「행정학의 논리」, 서울: 박영사.
- 강신태. (1981). 「사회과학 연구의 논리: 정치학·행정학을 중심으로」, 서울: 박영사.
- 강진호. (2010). 촛스키와 비트겐슈타인의 지칭 의미론 비판, 「철학」(제102집).
- 고미영. (2009). 「구성주의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서울: 집문당.
- 김경동. (1978). 발전사회학의 방법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사회발전연구: 이론, 방법 및 역사」, 서울: 민음사.
- 김경동. (1995). 「한국사회발전론」, 서울: 나남.
- 김보현 (1992). 과학 이론에 관한 전체주의적 견해에 근거한 구조주의의 논증에 대한 반증주의의 변형, 「철학연구」(vol.30 No. 1).
- 김보현. (1992). 라카토스의 긍정적 발견법, 「철학연구」(vol.118), 대한철학회.
- 김복태·조경호. (2012).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이 조직성공에 미치는 영향분석: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의 Decoupling 가설검증, 한국인사행정학회보」(제11권 제1호), pp. 199~216.
- 김영미. (2009). 「그들의 새마을 운동」, 서울: 푸른역사.
- 김영정. (1997). 「언어·논리·존재: 언어철학·논리철학 입문」, 서울: 철학과현실사.
- 김여수. (1980). 진리의 문제,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사회과학의 철학」, 서울: 민음사.
- 김창익. (2001). de re / de dicto 구분의 재고, 「언어연구」(17권2호), pp.53-68.
- 남경희. (2005). 「비트겐슈타인과 현대철학의 언어적 전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남경희. (1997). 「말의 질서와 국가: 근대 서구 정치철학의 비판과 재해석」,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노화준. (2013). 「한국의 새마을 운동」, 서울: 법문사.
- 문장수. (2004). 「의미와 진리」, 대구: 경북대 출판부.
- 문장수. (2012). 외연논리학의 이상과 한계, 「철학논총」(제69집), 새한철학회.
- 미우라 도시히코(三浦俊彦). (1997) 「可能世界の 哲學」, 박철은 (옮김) (2011) 「가능세계의 철학: 필연과 가능으로 읽는 존재와 세계」, 서울: 그린비.
- 박만엽. (2008). 포퍼의 사회과학 논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제24집), pp.65-89.
- 박이문. (1982). 「인식과 실존」,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백완기. (2005). 「한국행정학 50년: 문헌검토를 중심으로」, 서울: 나남출판.
- 소광희 외. (1985). 「哲學의 諸問題」, 서울: 지학사.
- 소홍렬. (1982). 「논리와 사고」,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소홍렬. (1980). 사회현상의 원인 설명,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사회발전연구: 이론, 방법 및 역사」, 서울: 민음사.
- 송하진. (1985). 이론의 확증에 관한 소고, 「한국자치행정학보」(vol. 1).
- 송현주. (1985). 강한 확증과 약한 확증, 「사회과학연구」(vol. 12),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신일철 편. (1990). 「포퍼」, 서울: 고려대 출판부.
- 신중섭. (1990). 구획기준의 문제, 신일철 (편) 「포퍼」, 서울: 고려대 출판부.
- 안병직. (2004). 픽션으로서의 역사: Hayden White의 역사론, 「인문논총」(제51집), 서울: 서광사.
- 오수길 외. (2009). 해석적 패러다임에 의한 행정학 연구 동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20권 제1호), pp.27-49.
- 유문무. (2009). 홀리스틱 패러다임과 사회과학의 지평확대, 「홀리스틱교육연구」13(2), pp. 17-39.
- 유민봉. (2012). 「한국 행정학」, 서울: 박영사.
- 윤명로. (1980). 과학의 개념,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사회과학의 철학」, 서울: 민음사.
- 윤영진. (2013). 행정학 연구경향의 분석과 과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90-2012」계재논문의 총괄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24권제2호).
- 이광석. (2013). 행정학으로의 투사에 관한 연구: 행정행태설과 행정언어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24권 제1호), 서울행정학회. pp.163-191.
- 이광석·문유석. (2011). 행정학의 언어적 전회에 관한 연구: 행정언어 모델 정립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제15권 제3호), 한국지방정부학회.
- 이남인. (2013). 「현상학과 해석학」, 서울: 서울대 출판부.
- 이민호. (2008). 연금제도와 세대 간 형평의 문제: the-Old-Eat-the-Young 가설에 대한 검증,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pp.1-19.
- 이봉재. (1993). 과학사와 과학철학: 자연주의 메타방법론의 검토, 「철학연구」(vol.33), pp. 137-155.
- 이상원. (2008). 인식적 확실성, 원초문장, 실험의 비단일성, 「철학탐구」(제23집), pp.199-226.
- 이유선. (1993). 「해석학과 과학: 독일학계의 세 가지 관점」해제, 서울: 민음사.

- 이좌용. (1980). 지식의 체계성과 적합성,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사회과학의 철학」, 서울: 민음사.
- 이주향. (2005). 「현대 언어·심리철학의 쟁점들 I」, 서울: 철학과현실사.
- 이진경. (2013). 「철학과 굴뚝청소부」, 서울: 그린비.
- 이한구. (2011). 「역사학의 철학」, 서울: 민음사.
- 이한구. (2013). 「지식의 성장」, 서울: 살림.
- 임규정. (2004). 포퍼와 쿤의 과학관을 통해 본 진리, 「대동철학」(제25집), 대동철학회. pp.1-21.
- 임기대. (2012). 「시대의 지성 노암 촘스키」, 서울: 살림.
- 장덕희. (2010). 조건부 지원금이 자치단체의 자체사업비에 미친 영향 분석: Fungibility 가설의 검증  
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제44권 제2호), pp. 291~309.
- 장신재. (1993). 「논리적 영문작법」, 서울: 신아사.
- 장인봉. (2003). 옮긴이 서문, 「논증연구: 논증발언연구의 언어학적 입문」, Christian Plantin, *Essais Sur L'argumentation*.
- 정갑진. (2008). 「한국의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의 재평가와 활용」, 서울: 케이빌더.
- 정대현. (1987). 「지칭」, 서울: 문학과지성사.
- 정대현. (1995). 문맥적 실재론과 반사실적 고정지시어, 「철학과현실」, (통권 제27호), 철학문화연구  
구소, pp.356-363.
- 조명환. (1985). 「언어심리학: 言語와 思考의 認知心理學」, 서울: 민음사.
- 조중걸. (2009). 「플라톤에서 Wittgenstein까지」, 서울: 베아르피.
- 조희연. (2007).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5·16에서 10·26까지」, 서울: 역사비평사.
- 차인석. (1980). 사회과학의 과학론,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사회과학의 철학」, 서울: 민음사.
- 한상진. (1996). 언술검증과 비판이론, 「사회비평」(제15호), 서울: 나남.
- 홍기용 외. (2013). 「KOICA-경상북도 새마을리더봉사단 평가방안 연구」, 서울: 한국국제협력단.
- Adorno, Theodor W. (1966). *Negative Dialektik*, 홍승용 (옮김), (2005) 「부정변증법」, 서울: 한길사.
- Adorno, Theodor W. et al, (1976). *The Positivist Dispute in German Sociology*, New York: Harper  
& Row, 김종호 (옮김), (1986) 「사회과학의 논리: 실증주의 논쟁」, 서울: 이문출판사.
- Ayer, Alfred Jules. (1946). *Language, Truth and Logic*, New York: Dover Publications, 송하석 (옮  
김), (2010) 「언어, 논리, 진리」, 서울: 나남.
- Ayer, Alfred Jules (ed.)(1959). *Logical Positivism*, New York: The Free Press.
- Berger, Peter L. and Thomas Luckmann. (1991).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London: Penguin Books.
- Brown, Harold I. (1977). *Perception, Theory and Commitment: The New Philosophy of Scie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신중섭 (옮김), (1987) 「논리실증주의의 과학철  
학과 새로운 과학철학」, 서울: 서광사.
- Butler, Christopher. (2002). *Postmodern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homsky, Noam. (1966). *Cartesian Linguistics: a Chapter in the History of rationalist Thought*, New  
York: Harper and Row, 이환묵 (옮김), (1971) 「변형문법의 이론적 배경」, 광주: 발행자 불명.
- Chomsky, Noam.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이선우 (옮김), (1990) 「언어에 대한 지식: 그 본질, 근원 및 사용」, 서울: 민음사.
- Connolly, John M. and Thomas Keutner (trs. and eds.). (1988). *Hermeneutics versus Science? Three German Views: essays by H. G. Gadamer, E. K. Specht, W. Stegmüller*,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이유선 (옮김), (1993) 「해석학과 과학: 독일학계의 세 가지 관점」, 서울: 민음사.
- Coser, Lewis L. (1971). *Masters of Sociological Thought: Ideas in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Decker, Randall E. and Robert A. Schwegler. (1992). *Pattern of Exposition*,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 Denzin, Norman K. and Yvonna S. Lincoln. (2011).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 Eagleton, Terry. (1983).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Oxford: basil Blackwell, 김명환·정남영·장남수 (옮김)(1990), 「문학이론 입문」, 서울: 창작과비평사.
- Farmer, David. (1999). *The Language of Public Administration: Bureaucracy, Modernity, and Postmodernity*, 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강신태 (옮김)(1999), 「행정학의 언어」, 서울: 박영사.
- Feldman, Martha S. (1995). *Strategies for Interpreting Qualitative Data*, London: Sage Publication.
- Fodor, Jerry. (1975). *The Language of Thought*, New York: Crowell.
- Fodor, Jerry. (1981). *Representations: philosophical essays on the foundations of cognitive science*, Cambridge, Mass.: MIT Press, 이영옥·정성호 (옮김)(1991), 「표상: 인지과학의 기초에 관한 연구」, 서울: 민음사.
- Fodor, Jerry. (1984). *The Modularity of Mind*, London: MIT Press.
- Garver, Newton and Lee Seung-Ching. (1994). *Derrida and Wittgenstein*,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이승중·조승우 (옮김)(1998), 「데리다와 비트겐슈타인」, 서울: 민음사.
- Gorovitz, Samuel·Merrill Hintikka·Donald Provenca·Ron G. Williams. (1979). *Philosophical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Language and Techniques*, Mcgraw-Hill College, 안건훈 (옮김)(1993), 「철학적 분석」, 서울: 고려원.
- Hacking, Ian. (1975). *Why does Language matter to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cking, Ian. (2000). *The Social Construction of Wha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Hanson, Norwood R. (1958). *Patterns of Discovery: An Inquiry into the Conceptual Foundation of Science*, 송진웅·조숙경 (옮김)(2007), 「과학적 발견의 패턴: 과학의 개념적 기초에 대한 탐구」, 서울: 사이언스북스.
- Heady, Ferrel. (1966). *Public Administration: A Comparative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Heisenberg, Werner. (1958). *Physics and philosophy: the revolution in modern science*, London: George Allen & Unwin, 최종덕 (옮김)(1985), 「철학과 물리학의 만남: 현대과학의 혁명」, 서울: 한겨레.
- Hempel, Carl G. (1966). *Philosophy of Natural Science*,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Inc., 곽강재

- (유희)(1981), 「자연과학철학」, 서울: 양영각.
- Honor, Stanley M. and Thomas C. Hunt. (1978). *Invitation to Philosophy: Issues and Options*(3rd.), Belmont, Cal.: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윤찬원·곽신환 (유희), 「철학에의 초대」, 서울: 경문사.
- Iggers, Georg G. (2005). *Historiography in the Twentieth Century, from Scientific Objectivity to the Postmodern Challenge*,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 Janik, Allan and Stephen Toulmin. (1996). *Wittgenstein's Vienna*, Chicago: Ivan R. Dee, Inc., 석기용 (유희)(2013) 「비트겐슈타인과 세기말 빈」, 서울: 필로소픽.
- Jeffrey, Richard C. (1967). *Formal Logic: Its Scope and Limits*, McGraw-Hill Co., 이좌용 (유희)(1983) 「형식논리학」, 서울: 서광사.
- Kuhn, Thomas. (1970). Logic of Discovery or Psychology of Research, in Imre Lakatos, and Alan Musgrave (eds.) *Criticism and the Growth of Knowledge*, Cambridge[E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조승욱·김동식 (유희), 「현대과학철학논쟁」, 서울: 아르케.
- Lauer, Robert H. (1982). *Perspectives on Social Change*, London: Allynand Bacon, Inc., 정근식·김해식 (유희)(1992) 「사회변동의 이론과 전망: 변동의 유형·메카니즘·전략」, 서울: 한울아카데미.
- Lincoln, Yvonna S., Susan A. Lynham, Egon G. Guba. (2011). Paradigmatic Controversies, Contradictions, and Emerging Confluences, Revisited, in Norman K. Denzin and Yvonna 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4th ed.), London: Sage.
- Llewelyn, John. (1986). *Derrida on the Threshold of Sense*, London: Macmillan, 서우석·김세중 (유희) 「데리다의 해체주의」, 서울: 문학과 지성사.
- Losee, John. (1980). *A Historical Introduction to Philosophy of Scie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Lyman, Edmund. (1970). *Philosophy and Science, Wittgenstein and Chomsky: An Examination of the Current Theory of Innate Ideas*, Austin: The University of Texas.
- Maren-Grisebach, Manon. (1979). *Methoden der Literaturwissenschaft*, München: UTB Franke, 장영태 (유희), 「문학연구의 방법론」, 서울: 흥성사.
- Merton, Robert K. (1968).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ew York: The Free Press.
- Monk, Ray. (1990). *Ludwig Wittgenstein: the Duty of Genius*, Jonathan Cape: Penguin Books, 남기창 (유희)(2013) 「비트겐슈타인 평전」, 서울: 필로소픽.
- Ogden, C. K. and I. A. Richards. (1923). *The Meaning of Meaning*, London: A Harvest/HBJ Book.
- Ongaro, Edoardo. (2013). The administrative reform trajectory of the European Commiss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in compound systems,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28(4). 346-363.
- Ongaro, Edoardo. (2009). *Public management reform and modernization: Trajectories of administrative change in Italy, France, Greece, Portugal, Spain*, Cheltenham, UK and Northampton, MA: Edward Elgar.
- Parker, Noel and Stuart Sim (eds.). (1997). *The A-Z Guide to Modern Social and Political Theory*,

Hemel Hempstead: Prentice Hall.

- Popper, Karl R. (1972).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London: Hutchinson, 박우석(옮김)(1994) 「과학적 발견의 논리」, 서울: 고려원.
- Popper, Karl R.. (1976). *Unended Quest: an Intellectual Autobiography*, Illinois: Fontana Collins.
- Popper, Karl R.. (1979). *Objective Knowledge: An Evolutionary Approach*, Oxford: Clarendon Press, 이한구·정연교·이창환 (옮김)(2013) 「객관적 지식: 진화론적 접근」, 서울: 철학과 현실사.
- Popper, Karl R.. (1983). *Realism and the Aim of Science: from the Postscript to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edited by W. W. Bartley III), London: Hutchinson.
- Schmidt, Siegfried Johannes. (1987). *Der Diskurs des Radikalen Konstruktivismus*, Frankfurt: Suhrkamp, 박여성 (옮김), (1995) 「구성주의」, 서울: 까치.
- Searle, John R. (1995). *The 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 Searle, John R.. (1969). *Speech Act: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이진원 (역) (1991) 「言語行爲」, 서울: 한신문화사.
- Stout, Rowland. (2006). *The Inner Life of a Rational Agent: in Defence of Philosophical Behaviourism*,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 Taylor, Daniel M. (1973). *Explanation and Meaning: An Introduction to Philoso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hevenaz, Pierre. (1962). *What is Phenomenology and Other Essays*, Chicago: Quadrangle Books.
- Toulmin, Stephen E. (2008). *The Use of Argu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고현범·임건태 (옮김), (2003) 「논변의 사용」, 서울: 고려대 출판부.
- Wittgenstein, Ludwig. (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 London: Blackwell Publishing Co. 이영철 (옮김)(2006), 「철학적 탐구」, 서울: 책세상.
- Wittgenstein, Ludwig. (1921).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이영철 (옮김)(2006), 「논리철학논고」, 서울: 책세상.
- Wright, Georg Henrik von. (1971).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배철영 (옮김)(1994), 「설명과 이해」, 서울: 서광사.
- Yanow, Dvora. (2000). *Conducting Interpretive Policy Analysis*, London: Sage Publication.
- Young, Michael (ed.). (1968). *Forecasting and the Social Sciences*, London: Heinemann.

이광석(李光錫): 영국 뉴캐슬 대학교(University of Newcastle upon Tyne)에서 사회정책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관심분야는 복지정책, 행정언어, 다문화행정 등이다. 저서로는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2014: 공저), 다문화행정론(2014: 공저), 질적 평가를 위한 행정정의(2013: 공저) 등이 있고, 최근 논문으로는 정책편차에 관한 연구: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2014), 설문지와 인터뷰의 언어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와 지방정부연구에 수록된 논문을 중심으로 (2014), 다문화가정 자녀의 병영생활에서 예상되는 문제와 그 대응에 관한 연구(2013) 등이 있다(lightstone@knu.ac.kr).

문유석(文維錫): 인디애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로는 조직관리, 성과관리, 갈등관리, 경찰행정 등이다.(yumoon@ks.ac.kr)

Abstract

## A Study on Logical Form and Argument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Lee, Kwang-seok

Moon, Yuseok

Recognizing that Public Administration as a science needs to pursue its efforts to be more scientific, this paper argues that the discipline of Public Administration needs to activate use of argumentation. Being a process to verify whether statements are right or wrong, suitable or not to the purpose, or applicable or not, argumentation composed of verification, falsification, and interpretation decides whether any statement can be accumulated as knowledge. Once statements are proved to be right through the process, a set of them can be delivered in a discipline of science. In the discipline of Public Administration, however, it has been seen a lack of these efforts. As the first step to activate argumentation in the discipline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abstracts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academic journals need to be written in the form of statements instead of being written by focusing on some key words. When argumentation is actively used in the discipline of Public Administration, it contributes to the findings of truths and it also helps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the discipline by sophisticating its methodology.

Key Words: Logical Form, Argumentation, Propositions, Verification, Falsification, Interpretation